



유엔 주요 소식

토마스 오헤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남북 인권대화 재개 촉구



토마스 오헤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남북간의 군사 및 인도주의적 대화를 재개하는데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일간 진행된 두 번째 방한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행정부의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인권 향상을 위

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남북간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있어,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구금 및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송환될 경우 가혹한 노역에 처해진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중국은 국제법상 비송환 원칙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에 송환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길 촉구하였다.

오헤야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임의구금, 인신매매, 강제실종, 성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북한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여러 형태의 폭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구금시설의 상황이 열악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방한을 통해 정부 고위관료,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만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방북을 위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방한 결과와 권고 등을 포함한 보고서는 2017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주요 소식

고문방지위원회 제61차 회기 개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4일 유엔 최고인권 대표사무소 인권조약부서 카르타 에드렌보스 국장의 개회사로 제61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에드렌보스 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전세계 각지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고문의 완전한 금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문방지소위원회, 고문 특별보고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이사회 등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문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알리고, 당사국에 고문을 근절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권최고대표역시 고문방지협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 국가가 드물다며 고문방지협약의 취약성을 언급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서 없이도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동 회기동안 위원회는 파라과이, 아일랜드, 파나마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게 되며, 안티구아 바부다의 경우, 보고서 없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놓친 국가들을 위하여 간소화된 보고절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 주요 소식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7차 회기 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1일 제67차 회기를 폐회하였다. 위원회는 폐회식에 앞서 이탈리아, 태국, 루마니아, 코스타리카, 몬테네그로, 마베이도스, 니제르, 나이지리아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동 회기동안 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함과 동시에, 동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 및 국가인권기구와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의 매그리스 아로샤 위원은 의장을 대신해 폐회사를 전달하며,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특히나, 성별을 기반으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견해 35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아로샤 위원은 동 일반견해의 채택은 기념비적이며, 1992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견해 19호가 채택된 이후 25년만이라며, 이를 통해 당사국에 여성을 모든 형태의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68차 회기는 10월 23일-11월 17일 개최되어, 부르키나파소, 북한, 과테말라, 이스라엘, 케냐, 쿠웨이트, 모나코, 나우루, 노르웨이, 오만, 파라과이, 싱가포르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유엔 주요 소식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0차 회기 개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3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약국 이브라힘 살라마 국장의 개회사로 제120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살라마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의 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인권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34%에 이르는 국가가 조약기구에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자유권규약 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강화 부서 대표를 만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길 촉구하였다.

위원회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상당수 국가들의 보고서 제출이 늦는 이유 중 하나는 사무국의 심의쟁점 (list of issues) 작성이 지연되기 때문이라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다른 조약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를 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동회기 동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온두라스, 몽골, 스와질란드,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의 자유권규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행사달력

2017년 8월 UN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7/24-8/11	고문방지위원회 제61차 회기	
7/31-8/2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3차 회기	
8/7-11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19차 회기	
8/14-31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8차 회기	
8/21-25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제79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